

# 장성군·고려시멘트, 공장부지재개발용역 매듭

### ‘개발모델 기본구상·타당성 조사’ 용역 최종 보고회 개최 주거·상권·관광휴양시설 등 조화롭게 조성되는 부지개발

장성군이 지역 최대 숙원사업인 ‘고려시멘트 부지 개발’을 풀어갈 실마리를 찾았다.

장성군은 ㈜고려시멘트와 공동 추진해 온 ‘장성 고려시멘트 공장부지 개발모델 기본구상·타당성 조사 용역’을 마무리 짓고 지난 5일 최종 보고회를 열었다고 6일 밝혔다.

김한중 장성군수와 고재진 장성군의회 의장, 홍기범·박을성 (㈜고려시멘트 부사장, 조용준(조선대), 김항집(광주대) 교수, 장성을 삼가 1동·황룡면 월평4리 주민대표,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했다.

장성군과 고려시멘트는 지난 2019년 부지 개발 필요성에 공감하고 공동 용역을 착수해 최근 마무리했다.

대상 지역은 장성을 단광리, 황룡면 월평리 일대 고려시멘트 부지 32만㎡로, 용역비 등 2억원은 장성군과 (주)고려시멘트가 절반씩 부담

했다.

용역 결과에 따르면 고려시멘트 부지는 주거형, 산업형, 산업유통형, 관광휴양형, 복합형으로 개발할 수 있다.

수익률과 경제적 타당성을 고려하면 ‘복합형’이 가장 합리적인 선택이라는 것이 용역사인 평화엔지니어링 측의 설명이다. 복합형은 주거와 상권, 관광휴양시설 등이 조화롭게 조성되는 부지개발 형태다.

최종 보고회에서 고려시멘트 관계자는 “고려시멘트는 부지 개발 의지가 분명하고, 지금도 확실한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며 “장성군 관계자, 전문가들과 협의가 필요한 단계로 장성군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고 요청했다.

전문가들도 행정 지원이 필요하다고 봤다. 김항집 광주대 교수는 “부지 개발이 이뤄진다면



장성군 고려시멘트 공장 앞 전경.

면 기반시설은 장성군에서 적극 지원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관광광역시도공사 사장을 역임한 조용준 조선대 교수는 “인구 감소에 대비한 다양하고 특화된 미래형 주거 형태로 개발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김한중 장성군수는 “4년이라는 긴 시간을 지나 맞이한 최종 보고회는 ‘고려시멘트 부지 개발’이라는 장성군 최대 숙원사업 해결을 향한

새로운 출발선”이라며 “변화를 바라는 장성군민의 염원과 혁신을 바라는 고려시멘트의 의지를 모아 ‘상생의 길’을 함께 걸어 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장성군과 고려시멘트는 공장 부지개발 의지가 확고한 만큼, 앞으로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 개발사업을 성공으로 이끌겠다”고 강조했다.

장성=김수권기자



## 구례군, 범씨 온탕소독기 무상 운영 지원

### 병해충 사전 예방 위해 범씨 온탕 소독 필수

구례군이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병해충 피해를 최소화하고 친환경농업 단지 확대를 위해 4월 10일부터 5월 10일까지 범씨 온탕 소독지원에 나선다.

범씨 온탕 소독은 정선된 벼 종자를 60℃의 물에 10분간 담근 후 다시 꺼내어 찬물에 헹구어내는 친환경 소독방식이며 기다리병, 깨씨무늬병, 벼이삭충 등 종자 전염성 병해충 발생률을 낮추는 데 효과적이다.

구례군농업기술센터는 매년 읍·면 농업인상당소 8개소에 온탕소독기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는 700 농가를 대상으로 70톤의 종자소독을 지원할 예정이다.

김순호 군수는 “벼 보급종은 미소독 종자로 보급되고 있어 못자리 설치 전 철저한 소독을 당부드리며 앞으로 벼 병해충 사전 예방 지원 사업 등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구례=박진호기자

## 나주시, 나주밥상 맛집 22곳 1차 지정...100곳 육성 목표

### ‘나주밥상 브랜드화’ 본격화...‘건강·안심·배려’ 밥상 실천 서약

나주시는 민선 8기 ‘나주밥상 브랜드화’ 사업에 참여할 맛집 22곳을 1차 지정했다고 9일 밝혔다.

맛집 지정은 ‘다시 찾고 싶은 나주, 맛깔나게 즐거운 나주밥상’을 비전으로 한 먹거리 명소화 전략으로 추진됐다.

시는 지역 맛집 100곳을 연차별로 확대 지정·육성하고 지역 상권 활성화를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달어 먹기 그릇 제공’, ‘수저·앞치마 등 위생관리’, ‘남은 음식 폐기’, ‘입식테이블화’, ‘정결한 주방·화장실 문화’, ‘종사자 친절’ 등 구체적인 실천 항목이

담겼다.

시는 맛집 지정 업소에 대국민 BI(Brand Identity) 공모를 통해 선정(상표특허출원)된 나주밥상 지정패를 교부할 예정이다.

나주시 관계자는 “관광 트렌드로 자리잡은 나주 먹거리 관광 활성화를 위해 나주밥상 맛집 100곳을 발굴·육성할 계획”이라며 “지속적인 음식문화 개선과 컨설팅을 통해 전통과 현대, 맛과 멋, 건강이 조화로운 나주밥상으로 다시 찾고 싶은 나주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나주밥상 1차 지정 맛집 목록은 나주시청 누리집 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나주=송준표기자

## 곡성군, 신규농업인 기초영농기술교육 개강

### 귀농·귀촌인 안정적인 정착지원 도모

곡성군이 지난 6일부터 다음 달 9일까지 신규농업인들의 안정적인 영농정착을 위한 기초 영농 기술 교육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신규농업인 기초 영농 기술 교육은 이 교육은 지난 3월 31일부터 모집을 시작해 귀농귀촌인, 예비 귀농귀촌인, 청년 농업인 등 총 25명이 선발됐다.

교육은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총 10회 40시간에 걸쳐 진행된다. 귀농·귀촌지원센터 및 농촌진흥청 등 각 분야별 전문 강사들이 내실 있는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주된 교육 내용은 귀농귀촌의 이해, 농지법, 세무 지식, 기초 영농 기술, 농기계 이론 및 실습 등으로 구성돼 있다. 농촌으로 이주한 귀농귀촌인, 청년농업인과 같이 아직 농업경험이 익숙지 않은 신규농업인을 위해 작물별 기초 재배 기술을 비롯해 관리기 등 농기계 실습 교육까지 다양하고 실용적인 주제들로 마련됐다.

특히 영농기술과 정보가 부족한 새내기 농업인에게는 맞춤형 교육을 통해 영농 노하우와 농업정보를 제공해 농업이 필요한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새로운 농업인들이 농촌생활에 안정적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곡성=양혜영기자



## “선배에 배우는 농업 노하우” 화순군농업기술센터, 학습동아리 운영

화순군농업기술센터는 지역특화작목의 전문기술 습득과 효율적인 농촌지도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2020년부터 농업기술센터에서 학습동아리를 운영하고 있다.

농업기술센터 학습동아리는 과수, 채소, 식량작물 등 관심 있는 분야를 선정하여 5명 이내로 자율적으로 모임체를 조직하여 연구하고 학습하는 직업역량강화 활동으로 올해는 7개 회 38명이 참여하고 있다.

학습동아리는 농촌지도사의 역량 강화 및 영농현장 기술지원 능력 배양을 위해 매월 1~2회 과제교육, 현장실습 및 현장컨설팅을 실시하여 작목별 업무관련 전문지식과 선배지도사로부터 농가 기술지도 노하우를 공유하는 등 공부하는 조직문화를 만들어 가고 있다.

화순=박순철기자



# 거리두기에도 기업시민은 ‘함께’합니다

서로 거리를 두고  
각자의 자리를 지켜야만 하는 힘든 시간이지만  
**포스코그룹**은  
더 나은 내일을 위해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떨어져 있어도 마음만은 가깝게  
늘 ‘함께’하고 싶은 기업이 되겠습니다

※ 포스코그룹 임직원이 직접 모델로 참여해 촬영했습니다

- POSCO 포스코인터내셔널 포스코건설 포스코케미칼 포스코에너지 포스코ICT 포스코광안
- 포스코SPS 포스코엔텍 포스코O&M 포스코기술투자 포스코티미날 포스코A&C